필수이론 (Bare Theory)*

양 우 진**

〈 차 례 〉

1. 서론
2. 현대언어학
3. 합리주의, GB이론과 기능통사론
4. 최소이론과 필수이론
5. 결론

1. 서 론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최상의 거울이다(Languages are the best mirror of human mind-Leibniz). 인간의 언어능력을 명시적으로 설명함을 문법의 목적으로 삼는다.(The explicit characterlization of Linguistic competence) 언어는 과학이다. 인간탐구 과학이다. 모든 학문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인간탐구에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언어학 연구는 Saussure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연구의 과학적 접근, 현대언어학, 구조주의(structuralism) 등 학문으로 언어학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Chomsky 교수의 Aspects(1965)의 출간은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Descartes-Humboldt로 이어지고 Platon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합리주의(rationalism)에 철학적 바탕을 두고, 인간의 마음·두뇌에 내재하고, 모든 인간에 공통된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능력(genetically determined language faculty)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언어학 연구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 1996년도 제주대학교 해외파견 연구지원 논문.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는 자연과학적 인본주의(humanism in terms of natural science)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문학 또는 인간 탐구 과학의 시대를 열고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효시가 되었으며 미래 학문의 기초를 마련했다.

언어는 인간이 창조한 것 중 제일 정교하고 값어치가 있으며 쉽게 data를 접할 수 있어 인간 연구에 최상의 방법이다. 언어는 규칙의 체계(rule system)와 원리의 체계(system of principle)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칙의 체계와 원리의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문법이며, 모든 인간, 종족에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현상, 즉 인간의 선천적 언어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이다.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는 표준이론(Standard Theory),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 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 대화분석(Discourse Analysis) 등 실로 언어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80년대 접어들면서 GB이론,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 등 양대 학파가 형성되면서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다. 90년대는 최소이론(Minimalist Theory), 필수이론(Bare Theory)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최소이론과 필수이론은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aussure로부터 개략적으로 현대언어학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여 필수이론의 배경을 설명하여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필수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현대언어학(Mordern Linguistics)

현대언어학은 Saussure로부터 이며, 이는 또한 구조주의(Structuralism)에 바탕을 두고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Saussure 시대에 언어학 연구는 주로 비교연구였다. Saussure의 강의는 다음 3기로 나누어 졌다.

1. German, Comparative linguistics(1891)
2. Comparative linguistics, Sanskrit(1891-1906)
3. General linguistics(1907-1911)

1913년 2월, 5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Ch. Bally와 A. Sechehaye 등 그의 제자들이 강의 노트를 정리하여 그에 대한 추모의 뜻에서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책자를 1916년에 출간했다.

이 책은 Saussure의 3기 강의 General linguistics(1906-1911)를 정리한 것으로 언어 연구의 과학화를 시도했으며 구조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후 체코슬로바키아 수도 Prague에서 V. Mathesius와 N. S. Trubeckoj가 중심이 되어 Prague School이 1926년 10월에 생겼고 덴마크 수도 Copenhagen에서 Viggo Brøyndal과 Louis Hjelmsley가 중심이 되어 1934년에 Copenhagen School이 생겼다.

Boas, Sapir, Bloomfield를 중심으로 미국의 구조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으며 Jakobson, Martinet, Kuno를 중심으로 기능주의(Functionalism)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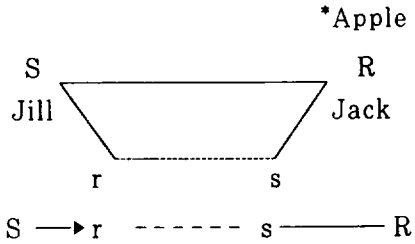
Franz Boas는 미국 인디안 언어에 관심이 있었고 1917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Handbook of American Indian Language는 인디안 언어연구에 공헌한 바 크다. Boas의 영향을 받은 Edward Sapir는 인디안 언어와 인류문화학에 관심이 많았다. Boas와 Sapir는 인류문화학의 시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언어 연구는 written language가 아니고 spoken language이어야 하며, 특정 귀족계층 언어연구가 아니고 일반 대중언어, 특히 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학문의 서민화 정책에 기여했다. 또한 미국의 시민정신, 민주정신에 공헌했고 연구를 과학화함으로 미국 학문 연구에 구조주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loomfield는 미국의 구조주의 학파의 거두로 Harvard 대학에서 연구를 했고 Yale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그의 저서 Language에서 다음의 예를 보자. (Language(1933), p.22)

> Suppose that Jack and Jill are walking down a lane. Jill is hungry. She sees an apple in a tree. She makes a noise with her larynx, tongue, and lips. Jack vaults the fence, climbs the tree, takes the apple, brings it to Jill, and places it in her hand. Jill eats the apple.

Jack과 Jill은 거닐다 사과를 본다. Jill은 사과를 보고 먹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r----s)이 발화된 표현이며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자극 S(Stimulus)와 반응 R(Reaction) 부분(S —— R)으로 나타내 진다. 이는 직접 관찰가능한 현상에 국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실증주의(Positivism)와 경험주의(Empiricism)에 입각하여 연구하고, 심리적으로는 행동주의(Behaviorism)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Roman Jakobson은 Harvard 대학 교수로서 Chomsky, Kuno, Halla의 은사이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언어의 최소단위는 음소(phoneme)로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 관계를 연구했다.

Kuno는 그 관계(Function)을 문장과 세계(world), 또는 상황,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 의하여 의미가 달라지고, 진정한 언어연구는 문장과 그 주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구조주의(Structuralism),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입각하여 실증주의(Positivism), 행동주의(Behaviorism), 경험주의(Empiricism) 등 현대 언어학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또한 언어학이 새로운 학문으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Wittgenstein, Astin 등 철학분야에서도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상의 원자적인 기본 문장을 찾아 그것과 실재 또는 경험과의 관계를 다루어 확실한 기초개념 및 기초문장을 찾아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구조를 쌓아 나가는 분석적 방법을 취하는 모든 철학은 분석철학(Analysis Philosophy)에 속한다."라 하여 철학연구의 핵을 언어 분석에 두었다. Wien Circle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어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기호론(Semiotics), 말과 사용자 관계를 화용론(Pragmatics), 말과 지시 관계를 의미론(Semantics), 표현과 표현, 즉 구조관계를 통사론(Syntax) 등 3영역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연구를 했으며 논리적 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검증주의(Verificationism)에 입각한 언어분석이 이루어 졌다.

1916년 이후 Sausure의 제자들에 의하여 출간된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이후 언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과학적 분석,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 구조적 방법은 화학기호 water, 물을 보편적 개념인 H2O로 한 것처럼 'John goes to school.'에서

<table>
<tr><td></td><td>John</td><td>goes</td><td colspan="2">to school</td></tr>
<tr><td></td><td>주부</td><td>술부</td><td colspan="2"></td></tr>
<tr><td></td><td>명사</td><td>동사</td><td colspan="2">전치사구</td></tr>
<tr><td></td><td colspan="2"></td><td>전치사</td><td>명사</td></tr>
<tr><td>Phoneme</td><td>John</td><td>goes</td><td>to</td><td>school</td></tr>
<tr><td></td><td>J,o,h,n</td><td>g,o,e,s</td><td>t,o</td><td>s,c,h,o,o,l</td></tr>
</table>

이것은 화학기호인 구조식 방법을 택했으며, 주부와 술부관계, 동사와 전치사구 관계, 그리고 J, o, h, n 서로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능(Function 관계), 즉 집합론(Set theory)에 입각한 것으로 수학적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언어 분석을 완전히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하고 연구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구조주의(Structuralism)와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인문, 사회과학분야에서 학문연구 방법으로 등용된 계기가 되었고 현대 학문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1916년부터 1950년대까지 구조주의, 기능주의는 눈에 보이는 관찰할 수 있는 대상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실증주의(Positivism)적 방법으로 학문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1960년대부터는 우리의 마음/두뇌 속에 있는 것, 즉 선천적 정신적 요소를 과학적 방법,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으로 연구가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 합리주의(Rationalism)에 입각한 학문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Descartes-Humboldt로 이어지고 Platon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합리주의(Rationalism)에 철학적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 연구방법이 1960년대부터 Chomsky 교수에 의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인간의 정신, 마음에 내재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선천적, 유전적 보편원리(Universal Principles)를 규명, 설명함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주의에 입각한 보편문법은 자연과학적 인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본학 또는 인간 탐구 과학의 시대를 열고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효시가 되었으며 미래 학문의 기초를 마련했다.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명시적(explicit)으로 설명, 규명함을 문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유전적으로 결정된 언어능력 또는 언어기능(genetically determined language faculty)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생득적 언어능력 즉 보편문법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리주의에 입각한 언어연구가 정착하면서 Chomsky 교수를 중심으로 한 GB이론, Kuno 교수를 중심으로 한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으로 2개의 학파가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세계 언어학은 2개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3. 합리주의, GB이론과 기능통사론
(Rationalism, GB theory and Functional Syntax)

보편 문법은 인간 언어 능력의 발전에 있어서 최초 단계(Initial State=SO)이다. 인간의 생득적 재능(innate capacity)인 보편 문법은 규칙 체계 및 원리 체계로 이루어지며 또한 값이 결정되지 않은 매

개변항(parameters)을 포함하는데 아래 (1)이 보여주듯이 적절한 언어환경(linguistic environment)이 주어지면 이러한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되고 안정상태(Steady State=Ss)인 개별언어의 문법 즉 핵심문법(Core Grammar)으로 발전한다. 핵심문법은 따라서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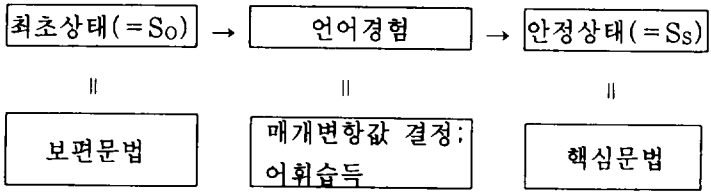
(1) 언어기능의 성장과정

a. 언어습득능력

언어능력의 최초상태(=S_0)→언어경험→언어능력의 최종상태(=S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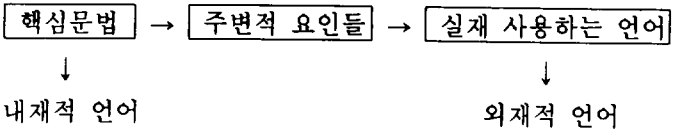
b. 언어능력

UG(보편문법)→매개변항 값 결정+어휘습득→CG(핵심문법)



c. 언어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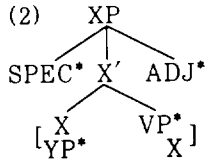
핵심문법(I-language)+화용적 요인(상황판단력 등)+기타 인지적 요인(기억력, 주의집중력, 상상력, 등)+기타 예외적 요인=실재 사용하는 언어(E-language)



개별 언어들이 표면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편문법의 매개변항들이 언어경험을 통해 서로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핵(head)과 보충어(complement)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현대 언어학에서는 4개의 주요 문법 범주(NP, VP, AP, PP)를 인정하는데, 이들 통사 단위들(syntactic units)은 각각 핵심이 되는

요소인 핵(N, V, A, P)를 포함하고 있다. 핵인 N, V, A, P, 는 각각 구범주인 NP, VP, AP, PP로 최대 투사된다. 이들 핵들은 핵계층 식형(X-bar schema)(2)상에서 하나의 보충어를 자매 절점(sister node)으로 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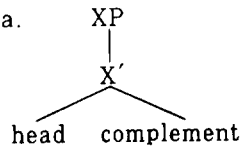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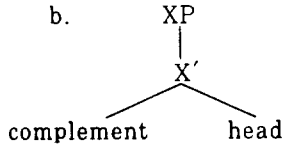
X=핵(N,V,A,P)
X′=중간투사범주(intermediate projection)
XP=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
YP=X의 보충어(complement)
SPEC=지정어(the, a/an, Tom's, any...)
ADJ=부가어(수식어)
*=0 ~ ∞(Kleene star)

핵과 보충어 사이의 선·후관계는 핵-보충어 매개변항(head parameter)으로 설명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가 영어라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3a)처럼 매개변항은 핵이 보충어를 선행하는 head-initial이라는 값을 갖게되고 한국어라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3b)처럼 보충어가 핵을 선행하는 head-final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를 핵심문법이라 한다.

(3) a.



b.



이처럼 핵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핵계층 식형(3)은 다음과 같은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를 적절히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4) a. [NPthe [N′[N book] [PP on the table]]]
[NP [PP책상 위의] [N′ [N책]]]
b. [VP [V′ [Vlike] [NPthe book]]]
[VP [V′ [NP책을] [V좋아하다]]]
c. [AP [A′ [Aproud] [PPof John]]]
[AP [A′ [PP존에 대해] [A자랑으로 여기는]]]

d. [PP [P′ [Pin] [NPthe house]]]
[PP [P′ [NP집] [P에서]]]

(4a)명사구 NP는 전치사구 PP를 부가어로 취하고 (4b) VP는 명사구 NP를 보충어로, (4c) AP는 전치사구 PP를 보충어로 취하고 있는데 전치사구 of John에서 of는 단지 John 에게 격을 주기 위하여 쓰인 의미적으로 무의미한 요소 (the semantically empty element)로 D-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PP보다 NP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d) PP는 명사구 NP를 보충어로 취하고 있다. (4)의 영어와 한국어의 예들은 결국 두 언어간의 구조적 차이는 핵과 보충어의 선행관계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영어의 경우 핵이 모든 문법범주에 있어서 보충어의 왼쪽에 나타나고 한국어의 경우 핵이 항상 오른쪽에 나타나는 언어임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적절한 언어환경을 경험하므로써 결정되는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에 대해 핵 매개변항을 예로 들어 논의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의 값이 결정된 단계인 핵심문법은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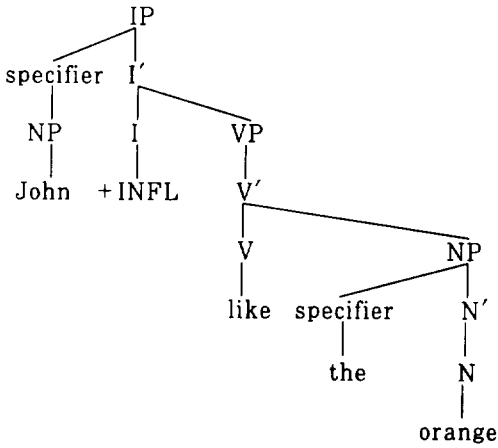
핵심문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실재언어의 이전 상태로서 마음속에 내재된 언어(I(nteralized)-language)이며 여전히 언어능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핵심문법은 개별언어의 핵심적인 문법원리를 포착해 주는 단계일 뿐이어서 개별언어의 실제 형태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내재된 언어가 실재언어(Actual language) 즉 외재적 언어(E(xternalized)-language)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적 요인들(marked peripheries),즉 개별 언어에 독특한(language-Specific) 단어형태, 불규칙한 예외현상들, 지역방언 및 개인방언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핵심문법은 GB이론의 연구대상이다. 말하자면 GB이론은 핵심문법을 통해서 보편문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이 언어 그 자체 즉 외재적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kuno를 중심으로 한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이 언어의 자립성을 부정하고 언어외적 요소를 중시한 반면 GB이론은 언어외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하여

순수 언어 자체 즉 내재적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편문법의 원리에 입각해서 몇 개의 예문을 들어보고자 한다.

John likes the orange.

NP와 VP 두 개의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와 IP의 비어휘범주(Non-lexical Category)로 구분된다. 주어인 John은 NP 범주이고 like the orange는 VP 범주이다. 문장 전체는 IP이다.



기저(Base)는 'NP +INFL VP' 이고 VP의 하위범주(subcategory)는 'V NP'이다. D-Structure는 기저에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한 것이므로 'John +INFL like the apple'로 된다. S-Structure는 V가 trace를 남기며 +INFL로 이동이 되는데 '+INFL +V'=likes가 된다. 주어인 NP는 VP에게서 theta-role을 받고 목적어인 the orange는 V에게서 theta-role을 받는다.

격(case)은 S-Structure에서 실현되는데 주어인 John은 INFL에게서 주격을 받고 목적어인 the orange는 동사 like의 지배(govern)를 받고 목적격을 받는다. 영어는 어순(word order)에 의하여 격을 받고 한국어는 형태적 격실현(morphological case realization) 언어이다. 고대영어는 격표시가 비교적 풍부했던 까닭에 어순이 한국어

처럼 다소 자유로웠으나 중세영어를 거치면서 격표시 어미의 상실로 명사의 격은 형태적으로 표현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영어는 격표시가 구조에 의존(어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만큼 고정되기에 이르렀다.

α가 β를 격표시하려면
①α는 β를 지배하고
②α는 β에 인접해야 한다.

NP는 Semantic-role과 격(case)을 받아야 한다. 의미역과 격을 받으려면 지배(govern)되어야 한다. 핵(head)은 보충어(Complement)를 지배하고 투사(projection)한다. 의미역 이론(theta-role), 격이론(case theory), 지배이론(government theory),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의 선천적 언어능력이다.

2) a) It rains.
b)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c) John is proud of him.

a), b), c)의 기저는 NP +INFL VP이다.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하면 심층구조(D-Structure)가 된다.

a) NP +INFL rain
b) NP +INFL be a book on the table
c) John +INFL be proud him

It, there, of는 의미적으로 아무런 뜻이 없는 요소(Semantically empty element)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의미역을 받을 수 없다. S-Structure로 되면서 it, there는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와 격이론(case theory)에 의하여 삽입되었고 of는 격이론에 의하여 삽입되었다. It, there, of 등을 허사(expletive)라고 한다.

허사는 한국어에는 없다. 영어에 있는 Move-α도 한국어에는 없다.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최상의 거울이다. 영어사용 민족은 형식과 이동민족이고, 한국민족은 실질(내용)과 정착민족이다. 다시 말을 바꾸면 규칙과 이동, 인간미와 정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제도의 개혁도 우리 것을 알고 우리 것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외국어 습득, 교육도 한국어, 한국사고 방식을 성장시키면서 외국어를 연구하고 익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GB이론, 최소이론, 필수이론의 기본원칙이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Kuno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연구되고 있는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1996년 후학기 Havard 대학 대학원에서 Kuno 교수가 강의한 기능통사론 강의 내용을 소개한다.

(1) In isolation
a. John can't eat beef, and Bill can't eat pork.
b. *John can't eat beef, and Bill Ø pork. (*for everyone)
c. *John can't eat beef, or Bill Ø pork. (*for everyone)
d. John can't eat beef, nor Bill Ø pork. (*for everyone)

(2) (1d) shows that NEG must start out at S-initial position in underlying structure.

(3) Speaker A: Who can't eat what?
Speaker B: a. John can't eat beef, and Bill Ø pork.
b. John can't eat beef, or Bill Ø pork.
c. ok/*John can't eat beef, nor Bill Ø pork.
N.B. To some speakers, this answer sounds like a monologue.

(4) How to account for the idiolectal variations shown in (3B):
a. There are many sentences for which speakers make different acceptability judgments.
b.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particular imaginary contexts that the speakers put the sentences in; or
c. It may be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their respective grammars.
d. If there are 100 million speakers of English, there are 100

million grammars. They are mostly identical, but different in details.

I.e. You cannot write a single grammar that explains everybody's grammar.

e. Your linguistic analysis of a given syntactic phenomenon should be able to account for idiolectal variations in acceptability judgments.

4. 최소이론과 필수이론 (Minimalist theory and Bare theory)

합리주의(Rationalism)에 바탕을 둔 언어의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연구는 언어학분야 뿐만 아니라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효시가 되었으며 미래 학문연구에 지표를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합리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이론은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이론(rich enough but meager enough theory)"이다. "최소의 수단"이란 꼭 필요불가결한 이론적 방편(theoretical device)만을 설정·활용함을 뜻하고 "최대의 효과"란 그 이론체계 전반에 걸친 효과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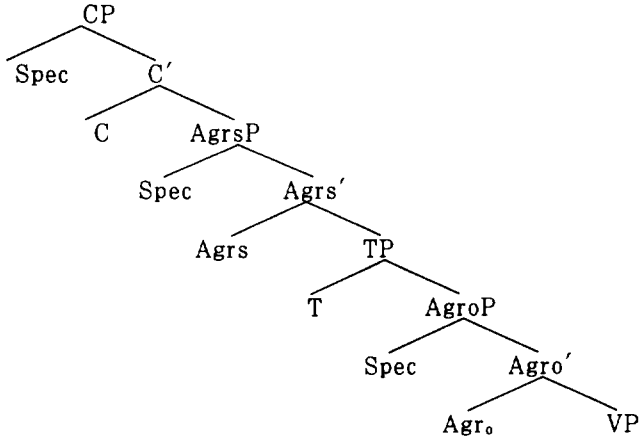
현대학문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고, 즉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분석,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간본성 연구는 언어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지과학 분야도 언어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언어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정교하고 최고의 극치를 자랑하는 걸작품이다. 고로, 인간 탐구를 위한 인간본성(human nature)에 대한 연구 중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가 가장 과학적 접근이 용이하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data)가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풍부하고 자유로이 구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학 연구는 최근 모든 학문분야에 앞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지배-결속이론(GB theory)이 언어연구에 상당히 공헌하고 발전했지만, 너무 많은 가설의 설정, 어떤 부분은 보편화되고 중복이 되어, 이를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이론을 Chomsky교수가 내놓게

되었다. 이것이 최소이론 또는 필수이론인 것이다.

구조식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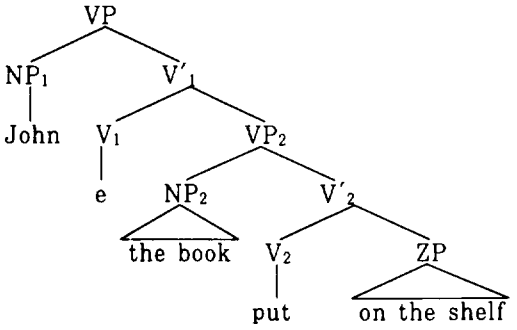


±INFL을 Agr와 Tense 두 개로 나누고 Agr와 Tense도 핵(head)으로 보충어(complement)를 투사하는 기능범주이다. Agr는 Agrs(subject)P, TP는 Agro(object)P로 나눈다. AgrsP는 CP의 보충어, TP는 AgrsP의 보충어, AgroP는 TP의 보충어이다. Agrs는 주어의 일치자질(agreement feature), Agro는 목적어 일치자질(object agreement feature)이다.

Chomsky(1995, p.180)는 술부내 주어 가설을 설정하고 동사구(VP)의 기저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John put the book on the 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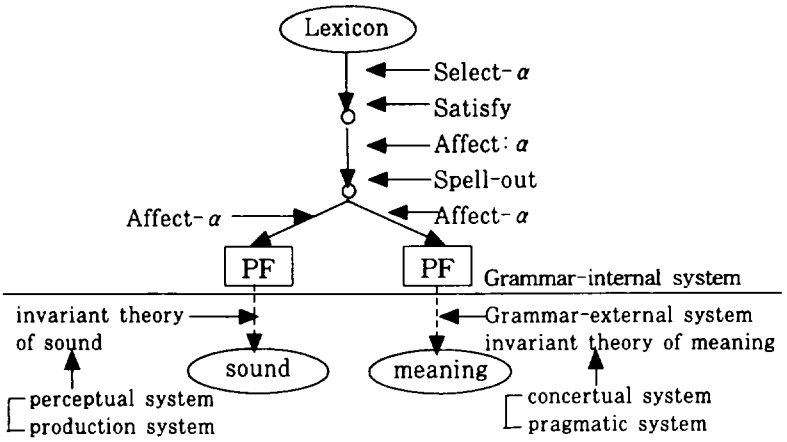
put은 두 개의 내재논항을 갖고 있다. 하나는 지정어 자리에 놓고, 외재논항은 다른 최대투사범주로 이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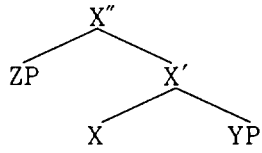
최소이론은 어휘부(lexicon), 만족(satisfy), 문자화(spell-out), 음성형태(phonetic form-PF), 논리형태(logic form-LF) 4개의 부문(component)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법적으로 의의있는 계층(grammatically significant level)은 음성형태와 논리형태 뿐이다.

α-선택(select-α), α-처리(affect-α),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 지연성(procrastinate)와 이기성(greed)이라는 지극히 일반적 경제원리(economy principle)를 설정하고 있다.

문법체계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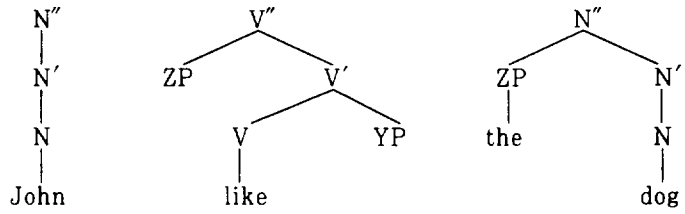
어휘부에 입력된 어휘항목(lexical item)중 어느 단어를 선택(select)하여 투사원리(projectin principle)와 선택제한(selection restriction), 즉 select-α에 의하여 논리적 체계(computational system)을 갖춘 것이 도표 (1)인데 이것을 X-bar theory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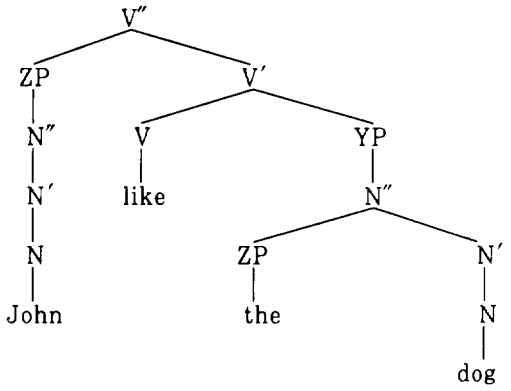
도표 (1)에서 X는 head이고 YP는 X의 complement, X′는 중간투사(intermediate projection)이다. X″는 ZP를 specifier로 하는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 category)이다. complement인 YP도 Y를 head로 하는 최대투사범주이고 ZP도 Z를 head로 하는 최대투사범주이다. head와 complement는 의미역(theta-relation)과 연관되어 상당히 제한적(more local)이고 기본적(more fundamental)인 필수관계이다. head와 complement는 필수적인 관계가 아니다(elsewhere category).

예를 들면, 어떤 동기, 상황 등에서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 "존은 그 개를 좋아한다"라는 추상적인 문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그 동기·상황들이 같으면 한국인이건 미국인, 중국인이건 똑같다. 여기에 parameter가 작용하여 한국인은 한국어, 미국인은 영어, 중국인은 중국어, 추상적인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head parameter를 보면 한국어 등은 head-last parameter이고 영어 등은 head-intitial parameter이다.

'John likes the dog' 문장을 X-bar theory에 의하여 분석하면,





위와 같은 computational system을 같게 되고 satisfy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추상적인 하나의 명제(proposition)이다.

> Once crucial assumption had to do with the way in which the computational system presents lexical items for further computation. The assumption is that this is done by an operation, call it SATISFY, which selects an array of items from the lexicon and presents it in a format satisfying the conditions of X-bar Theory. SATISFY is an "all-at-once" operation : all items that function at LF are drawn from the lexicon before computation proceeds, and presented in the X-bar format. (Chomsky (1992), p.27)

satisfy는 어휘부에서 항목들을 선택하고(select), X-bar theory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순간적인 작용인 것이다.

Affect-α는 1984년 Lasnik와 Saito에 의하여 제안된 용어로서 지배 결속이론에서 move-α가 작용했던 기능을 Affect-α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move-α는 "무엇이나 아무대로 이동하라(move anything anywhere)"이고 Affect-α는 "아무데서나 무엇이나 하라(do anything to anything)" 즉 delete-α, insert-α, move-α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개념이다.

spell-out는 PF와 LF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도출과정 각 점에서

구구조 표시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 sigma Σ를 우리는 갖게 된다. 어느 점(point)에서 우리는 spell-out 규칙적용을 하여 PF로 전환시킨다. 만약 Σ가 하나의 single phrase marker가 아니라면 PF규칙이 구구조 표시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에 적용될 수 없어 적절한 PF 표현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출과정은 PF에서 쓸모 없게 된다.

만약 Σ가 하나의 single phrase marker라면 PF규칙은 그것에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spell-out과정을 거쳐 PF와 LF의 출력(out-put)은 외적 접합조건, 하나는 합치점검(convergence)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점검(interpretation)에 만족해야 한다.

> Consider a representation π at PF. PF is a representation in universal phonetics, with no indication of syntactic elements or relations among them(X-bar structure, binding, government, etc.). (Chomsky (1992), p.37)

PF의 요소가 합치의 점검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편적 음성자질(universial phonetic feature)에 의해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kptgdb/에서 음소(phoneme)는 보편적 음성자질을 갖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발성 또는 인지 불가능하므로 PF해석 점검에 통과되지 않는다.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에 위배되는데, 이는 Chomsky교수가 이미 제안했던 원리이다.

> 3We might express many of these ideas by saying that there is a 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FI) that requires that every element of PH and LF, taken to be the interface of syntax(in the broad sense) with systems of language use, must receive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must be licensed in the sense indicated. None can simply be disregarded. At the level of PF, each phonetic element must be licensed by some physical interpretation. (Chomsky(1986), p.98)

LF에서 문법적 체계를 수리적 방법으로 도출(computational

derivation)된 구조는 합치의 점검과 해석의 점검을 받게 되는데, 완전해석원리를 위배해서는 안된다.

> At LF, we assume each legitimate object to be a chain CH=(a1, ·····, an):at least (perhaps at most) with CH a head, an argument, a modifier, or an operator-variable construction. (Chomsky (1992), p.38)

LF에서 합치의 점검과 해석의 점검, 완전해석원리를 만족하려면 각 적법한 요소는 하나의 chain을 이루는데 다음 4개만이 허락(licensing)된다.

① CH head
② CH an argument
③ CH a modifier
④ CH an operator-variable-constrution

어떤 표현이 완전히 적법한 요소들로 구성되었다면 그것은 LF에서 완전해석원리를 만족시키고 형성하는 도출은 LF에서 합치의 점검을 통과하게 된다.

결국, 최소이론 select-α, satisfy, affect-α, spell-out 등의 규칙을 완전히 자유롭게 마음대로 적용되도록 내버려두고 모든 도출은 PF와 LF에서 합치 점검과 해석 점검의 기준 또는 기초는 완전해석원리 한가지 뿐이라는 것이다.

최소이론에서 2개의 원리만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해석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원리(economy principle)이다. 결국 GB theory에서 그 방대한 가설을 축소하여 minimalist theory에서는 2개의 원리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경제원리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차지하려 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피하든지 피할 수 없으면 가급적 늦추려고 하는 인간의 경제적 천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원리이다.

Chomsky는 이 경제원리를 "some notes on Economy of dreivation and representation(1988)"에서 이미 언급했다. 경제원

리는 두 개의 원리로 되고 있는데 하나는 손해가 되는 것은 피하든지 피할 수 없으면 모든 문법규칙은 가능한 늦게 적용하려는 성질의 것인데 이른 지연성(procrastinate)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오로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는 원리로 이를 이기성(greed)이라 한다.

> Two major questions remain : Why is overt raising barred in English?
> Why do the English auxiliaries **have** and **be** raise overtly, as do verbs in French?
> The first question is answered by a natural economy condition : LF—movement is "cheaper" than overt movement (call the principle **procrastinate**). (Chomsky(1992), p.43)

French류에서는 V-인상 후에 문자화가 되지만 영어 등과 같은 언어에서는 V-인상 전에 문자화가 된다. 형태론적 자질(morphological features)을 반영하는 PF규칙은 프랑스에서는 V-인상을 강요하나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프랑스와 같은 언어는 overt raising을 강요하는 "강한" AGR (stron AGR)을 갖고 있으나 약한 AGR(weak AGR)을 갖고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overt raising이 된다.

be, have 동사는 의미적 자질(semantically relevant feature)이 결여된 매우 가벼운 동사(very light verb)이다. 그래서 LF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be, have가 PF규칙에 의하여 overt rais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Last Resort, then, is always "self-serving" : benefiting other elements is not allowed. Alongside of Procrastinate, then, we have a principle of Greed : self-serving Last Resort. (Chomsky(1992), p.47)

문법적 작용(grammatical operation)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형태론적 필요(morphological necessity)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다. 어떤 자질(features)의 핵(head)이 점검영역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출과정에 분산을 이루어야 한다든지 등이다.

어떤 연산자(operator)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된다면 그래야만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법적 요소가 자신에게는 조금도 이득이 없는 문법적 작용을 다른 문법적 요소의 이득을 위해 감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만 한다는 경제원리가 이기성(greed)이다.

CP의 핵(head)은 wh, Q 자질을 갖고 있다. 이 자질(feature)은 wh와 같은 연산자의 형태론적 특성인 것이다. 만약 C의 연산자 자질이 강하다면 그 이동은 overt해야 한다. I가 C로 자동적인 인상은 C의 자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소이론은 모든 문법적 도출(grammatical derivation)의 기본요인을 어휘항목 또는 핵의 형태론적 특성 또는 자질(morphological properties or featurees)에 극한하고 있다.

형태론적 자질의 점검영역(checking domain)에서 점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이는 지금까지 문법이론이 추구하여 온 작용 또는 규칙이 대폭 축소된다. 이는 문법이론의 가설을 제한, 약화시켜 그 설명력을 확대·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최소이론은 형태론적 특성 또는 자질의 점검(morphological check-up)을 이론의 특성으로 하고 있어서 형태론적 자질 중심 문법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Pollock교수의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Harvard 1996)

(1) [PRO (ne) [infinitive Ø] (pas) [$_{Mood}$ Ø] [mal/bien/á peine [V]]]]
=> infinitive can check [-finite]
=> Mood can check [-realis]

(2) Erase uninterpretable feature as fast as you can.

(3) [$_{Infl}$ Infl° [V N [V V° N]]]

A. If Infl° is finite, it hosts {[+nominative], [+N], +V }. If L is a null subject language (i.e. if it has the + value of (4)

(4) a. L has (±pronominal) verbal agreement

b. Verbal agreement is [+pronominal] iff it distinguishes [± person], [±speaker], [±plural] morphologically.

Infl will attract V's {[+N], [+nominatif]} features together with its V features and will derive (5), in which the verb's [+nominative] can be checked and the [± person], [±speaker], [±plural] features of V° identify N1 = PRO.

(5) [$_{Infl}$ [Vi° + Infl° [V N1 [V ti N]]]

If L is [-pronominal Infl, Attract {[+N], [+nominatif]} will extract N1 from spec V and adjoin it to Infl as in (6):

(6) [$_{Infl}$ Ni Infl° [V ti [V V° N]]]

If V° has further uninterpretable features as in Modern French, attract will yield (7):

(7) [$_{Infl}$ Ni Vj° +Infl° [V ti [V tj N]]]

B. If Infl° is non finite, it has {[+N], [+Ø]} featureas. If L is [+pronominal] Agreement, and if the infinitival ending is {[+N], [+Ø]}, Attract {[+N], [+Ø]}, will yield (8):

(8) [$_{Infl}$ [Vi° +Infl° [V PRO [V tj N]]]

If L is [-pronominal] Agreement or if its infinitval ending is not {[+N], [+Ø]}, Attract {[+N], [+Ø]} will adjoin PRO to Infl as in (9):

(9) [$_{Infl}$ PROi Infl° [V ti [V V° N]]]

(8) is Modern Itlaian, Spanish and Catalan. (9) est English and Modern Frnech and Sardinian and Provençal. Medieval French could use both.

5. 결 론

합리주의(Rationalism)에 바탕을 두고 언어의 구조(structure), 기능(function)을 연구하는 것이 현대언어학 연구의 핵심이다. 이상적인 문법이론은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문법이론"이다. 또한, 인간의 선천적 언어능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규명, 설명함을 문법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언어학 이론은 형식적 체계에 입각한 체계적 가설들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역적 논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대 언어학은 Saussure부터이다. 그는 처음으로 general linguistics 강의에서 언어의 구조를 연구 강의하여 구조주의(Structualism)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의 영향으로 프라그학파, 코펜하겐학파가 생겼고, 미국의 구조주의가 꽃피게 되었다.

2. Jakobson은 언어의 구조, 기능을 연구해서 음성학 연구의 효시가 되었으며 Bloomfield는 행동주의(Behaviorism), 경험주의(Empiricism), 실증주의(positivism)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연구의 길을 터 놓았다.

3. Chomsky교수는 합리주의(Rationalism)에 입각한 언어연구를 하여 현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의 효시가 되었고, Kuno교수는 Jakobson의 영향으로 기능통사론(Functional Syntax)연구로 구라파 Text theory에 영향을 주었다.

The Minimalist Program(Chomsky. MIT. 1995)의 출간으로 최소이론과 필수이론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의 인식(Knowledge of Language)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선천적 특성이므로 언어연구는 인간 본연의 인지체계(cognitive system)에 좀 더 접근해야 한다. 간결성(simplicity)과 경제성(economy)에 입각한 언어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아직 program 단계이며 정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

래지향적 측면에서 타 학문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기며 몇 년 후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Bloomfield L. (1933) *Language*. George Allen & Unwin LTD.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Praeger Publishers.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Chomsky, N. (1997)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asil Blackwell, Oxford.

Kuno, S. (1987) *Functional Syntax*.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uno, S. (1996) "Functional Syntax", *Harvard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Lepschy, G. C. (1982) *A Survey of Structural Linguistics*. Billing and Sons.

Pollock, J. Y.(1996) "Topics in Universal Grammar", *Harvard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Saussure, F. de.(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ublié Ch. Bally et A. Sechehaye, evec la Collaboration de A. Riedlinger, Lausanne.